"도민께 더 가까이"… 도지사 후보들, 도내 곳곳 민생 행보

민주 김관영 후보 무주 무풍 부평마을 태권도원 등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25일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부평마을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 서쪽 부안군 위도면을 시작해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25일 이번에는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부평마을을 찾아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무주 안성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경북 김천시 대덕면과 경계를 이루고 현재 25가구가 한 집안 식구처럼 살고 있는 부평마을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위도부터 부평마을까지 도민들의 애환과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생하고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삶의 현장을 가슴에 새기며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평마을에 이어 무주 태권도원에 방문, 관계자로 부터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관영 후보는 "무주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해 올림픽 출전국과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태권도 아카데미로 만들겠다"며 "어느 한 곳도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며,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조배숙 후보 봉동생강골 시장 찾아 지지 호소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는 정운천 의원과 함께 25일 완주 봉동생강골 시장을 방문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완주 봉동생강골시장을 방문해 "전북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어갈 힘있는 도지사 후보인 조배숙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산업시찰을 가는 전주시청 공무원 노조원 가족들을 격려차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한 조 후보는 이어 완주 봉동생강골시장을 찾았다.

시장에선 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온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장보기 나온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조배숙 후보는 2001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4선의 경륜을 쌓았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상임위원장, 당 대표 등을 거친 정치지도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 중 인재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전북의 도약을 위해 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도지사, 전북 발전을 위한 힘 있는 도지사로 조배숙 후보를 믿고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조배숙 후보는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글로벌상용차(수소상용차) 산업벨트 구축, 신산업특화단지(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발빠른 전주-완주 통합논의 착수, 사회적경제인재개발원 설립 등을 내세워 민심 공략에 나섰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전북 의원 2명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윤덕 의원, 4관왕 '쾌거'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사진 왼쪽) 의원과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의회 개원일에 맞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심의를 거친 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0% 내외의 소수의원만이 수상하는 국회 차원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김윤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문제를 해결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장·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중심형' 의정활동으로 민생과 밀접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의 내용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윤덕 의원은"이번 수상의 영예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온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동지들, 그리고 보좌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윤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재선의원으로 복귀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매년 실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2020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인천공항 노동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한병도 의원, 여·야 협치부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도 같은 날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돼 올해 2회를 맞이했다.

특히, 한 의원이 수상한 여·야 협치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장단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여·야 협치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 능력을 무기로 여야 협치를 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지내며,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역할, 원내 운영을 맡은 바 있다.

/유호상 기자

투표소 입구·표지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전북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사전투표 포함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따뜻한 복지 실현 군 복지재단 설립"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최영일 무소속 순창군수 후보가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순창군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최 후보는 "복지자원 발굴, 가부문화의 풍토 정착, 찾아 가는 복지 서비스를 기조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1,000개에서 3,000개로 확대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해 주거 안정에도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또, "순창읍 어르신들의 목욕탕 이용료를 1,000원으로 하고, 마을 택시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덧붙여,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을 건립해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복리증진도 빼놓지 않았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청, 해외 공무원 대상 홍보 추진

스마트 그린산단·신산업복합단지에 높은 관심 표명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25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 해외 공무원들을 초청해 새만금 홍보와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개발도상국 13개국 공무원 19명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진행현황, 다양한 투자 혜택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클러스터 등의 신산업과 투자유치, 기반시설 구축 등 주요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해외 공무원들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공항경제특구, 항만경제특구, 기업주도형 관광·신산업복합단지 등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본국 귀국 시 새만금 사업을 국책사업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희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개도국에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새만금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여러 국가와 협력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호상 기자

새만금호 내 선박 유류유출 사고 대응훈련 시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25일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설선 등의 선박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한 모의 합동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수변도시 준설구역의 낮은 수심으로 인해 준설선이 좌초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으며, 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호 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좌초된 선박상태 파악, △신속한 상황전파 및 수습 지휘체계 마련, △유류 방제조치 등 대응체계 점검, △사후평가 순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유호상기자

"군산시민문화회관에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민주 신영대 의원, 행안부 공모 선정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내 유휴시설에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 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군산 소통협력공간은 군산시민문화회관에 들어설 예정이다.

과거 불가피하게 운영이 중단됐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향후 군산시민의 소통과 문화의 거점이자 군산 성장 동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이곳에는 주민 간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연구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오는 6월부터 3년간 총 60억 원을 투입해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나선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전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에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꾸준한 업무 협의를 이어가는 등 적극적 노력을 이어왔다.

신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군산시가 주민 주도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통협력공간이 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혁신 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